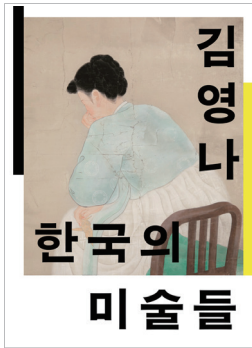


김영나 지음, 『한국의 미술들 : 개항에서 해방까지』

세계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근대미술들의 자리
(위크룸, 2024. 01)

목수현*



이 책은 김영나 교수가 1880년대에서 해방기까지 한국의 ‘미술들’을 당대의 역사 사회적 배경 안에서 서술한 책이다. 이미 2020년에 『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』(미진사)을 펴낸 바 있는 저자의 후속작이자 시대로 보면 전편에 해당되기도 한다. 1945년으로 한국의 현대를 보는 저자는 이 책에서 개항으로 시작되는 근대 미술을 1장 근대미술의 서막, 2장 서화에서 미술로, 3장 근대성과 모더니즘 미술의 탐구, 4장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회색지대로 나누어 해방 전후까지 다루고 있다.

이 책의 특징은 몇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. 첫째, ‘미술’이 아니라 ‘미술들’이라고 붙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저자는 미술을 회화와 조각, 공예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장르 내로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건축, 사진, 시각문화로 확장한다. 그 이유는 이 시기가 개항 이후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시각 경험이 다변화된 시기이기 때문이다. 도시화와 새로운 건축, 복제 인쇄 매체의 발달과 사진 및 잡지의 표지와 삽화 등 시각매체를 다룸으로써 저자는 생산자(작가) 중심의 미술사가 아니라 향유자를 함께 이 ‘미술들’의 주체로 다룸으로써 대중시대 미술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. 아울러 전시제도와 시장 등을 아우르면서 미술들을 둘러싼

* 근현대미술연구소 소장

제도 안에서 이 미술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피고 있다.

또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서구에서 시작한 '근대'라는 시간적 성격이, 지역(공간)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근대미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한국의 근대미술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고자 했는데, 이는 이 책을 관통하는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. 기존의 연구들이 근대미술의 변화를 서구 미술의 도입이나 영향 등으로 파악했다면, 저자는 이 '미술들이 세계사의 흐름과 전세계적인 미술의 변화 안에서 어떤 부분을 포착하여 수용하고 변화시켜 표현해 냈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한다. 서양미술사 연구로 출발한 저자의 이력은 이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. 또한 이러한 서술에서 한국 근대사와 세계사의 큰 흐름 안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묘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안내한다.

이 책에는 저자가 30년 동안 쌓아온 온 한국 근대미술의 연구 성과가 잘 드러나 있다.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로부터 일본에 유학했던 미술가들, 또 이인성의 작품과 고유섭의 한국미술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개별 주제의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. 이 책은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개설서로, 여기에 후학들의 최근 연구 성과와 새로운 전시들을 충실히 섭렵하고 글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이 책의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겠다. 더불어 200여 장의 도판과 자료 사진들은 도록으로서의 장점도 갖추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.

저자가 조명하고자 한 “동양과 서양, 전통과 근대성, 식민주의와 민족주의, 개인과 군중이 공존하던 이 혼성의 시기에 미술가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활동했는지, 또 당시의 문화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”에 대한 답으로서 이 책은 이제 막 한국 근대미술을 알아가려는 신진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.